

인쇄하기

법률신문

대한변협-유니세프, '기부문화 정착' 업무협약

서영상 ysseo@lawtimes.co.kr 입력 : 2018-01-25 오후 1:37:59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와 유니세프한국위원회(회장 송상현)는 24일 서울 마포구 서강로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 기부 문화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97명의 재능기부 변호사단 위촉식을 가졌다.

대한변협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유산기부 시스템을 국내에 구축하는데 법률적 문제에 대해 협력하고 유니세프가 추구하는 지구촌 어린이의 권리증진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 △유산기부자에 대한 법률상담을 위한 변호사 인력풀 제공 △유언 공증 시 변호사 증인 참석 △양 기관 사업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우리 사회도 선진국처럼 유산기부가 활발히 이뤄져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